

Luminous Density
:Innocence on Canvas
투명한 밀도

Jeong Hyun Ha
하정현

2024.3.9.-30.

그동안 작가 자신의 언어와 여러 비평가에 의해 형성되고 구조화된 그의 회화에 대한 내러티브를 수용하면서도 다른 관점과 해석을 전달해 보고자 한다. 작가가 이번 전시를 통해 회화로 실현하려는 것은 직접 타이틀을 결정한 ‘투명한 밀도’이다. 이 키워드는 두 가지 영역으로 달성되는데, 표현 기법으로 담아낸 조형언어와 기호로 담아낸 삶의 순간들이다.

작가 특유의 기술을 배우기 전의 원초적인 화법은 화면을 대하는 관점 및 태도와 연관된다. 낙서향의 필치와 풍부한 색감, 투명감을 의도한 중첩으로 구성된 작품은 오일 스틱이 대표적인 매체로 활용된다. 일반적인 유화 작업에서 유화물감을 붓에 묻혀 작업을 하는 것과 달리, 물감이 아닌 오일 스틱 자체를 쓴 후 손이나 붓으로 문지르고 이 과정에서 미디엄을 함께 사용해 유동성을 키우기도 하고, 붓에 오일 바를 비벼 묻히거나, 오일 바를 미디엄에 개어 붓에 묻혀 작업하기도 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감성과 의도를 드러내며, 솔직함으로 가장 빠르게 본질(순수성과 투명성)에 도달한다. 다만, 매체를 다양하게 변용하는 것은 형식적 발상보다는 내재된 이야기의 복합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선택은 힘을 빼고 그린 그림이 더 큰 힘을 가질 수 있다는 역설을 보여준다.

작품명 ‘Draw without drawing’은 작가의 작품이 고전적인 드로잉의 개념이 아닌 작가 안에 있는 것들을 끌어내는(draw) 것임을 나타낸다. 2013년부터 시작된 이 시리즈는 현재 160번 대를 지나고 있다. 이 번호는 숫자 뒤에 하이픈이 붙거나 알파벳이 붙는 등의 방식으로 파생되지 않고 하나씩 부여되는데 작품이 작든 크든, 혹은 몇 번의 레이어링이 일어났는지 상관없이 동등하게 여겨지고, 작가의 작업 과정과 수반된 삶이 하나의 선으로 연결된 여정이며, 모든 과정과 산출물이 다 소중하게 다루어지고 있음을 느끼게 한다. 앞으로 200번, 300번의 ‘Draw without drawing’이 어떤 모습일지 상상하면 묘한 설렘과 기대감이 있다.

1. 투명

작가는 대학에서 미술학, 디자인학으로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기업에서 디자인 실무 경력이 있고, 이후 오랜 기간 회화에 전착하고 있다. 이 과정의 수행은 회화 안에서 조형언어와 디자인언어에 대한 동시적 이해와 조합을 바탕으로 내재적으로 품고 있는 코드를 시각화하는 것으로 발현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작품을 분석하면 가시적인 면에서 사용자 인터페이스(UI) 디자인이 연상된다.

현실의 사물성을 재현하는 애플의 ‘스큐어모피즘’, 단순한 선과 면으로 아이콘을 구성한 마이크로소프트의 ‘플랫 디자인’, 플랫디자인에 입체감을 부여한 구글의 ‘머티리얼 디자인’, 그림자로 볼륨과 촉각감을 강조한 드리블의 ‘뉴모피즘’ 등 지난 20년간 UI디자인의 흐름은 한 작가가 일생에 걸쳐 펼치는 작품의 변천처럼 느껴진다.

작가는 십수 년의 화력 안에서 근현대 작가 특유의 시기적 변천을 답습하지 않았고, 그만의 변천 과정으로 구현한 화면은 또 다른 UI 디자인 양식인 ‘글래스모피즘’과 닮았다. 글래스모피즘은 특유의 투명도(배경을 흐리게 처리해서 유리에 성애가 깬 듯한 효과), 개체가 공간에 떠 있는 것처럼 보이는 다중 레이어의 방식, 선명한 컬러를 사용해서 흐릿한 투명도를 더욱 강조, 개체의 은은하면서 가벼운 느낌의 테두리 등의 특징을 가진다.

이러한 유사성을 유추한 것은 작가의 의도와는 별개의 것이지만, 스마트 디바이스를 통해 작가가 경험하고 익히고 받아들이는 것, 망막에 맺힌 이미지와 해석된 데이터에 대한 일정 부분의 반영이 아닐까? 개인적으로 작가가 진정으로 의도하지 않은 것은 그러한 부분으로 보인다.

투명은 태초의 맑음도 있었으나 정제를 통해서도 달성할 수 있는 것이다. 작가의 삶은 인터뷰에서, 팔레트에 반듯하게 쌓인 스테인리스 물감 종지에서 알 수 있듯 규칙적이고 계획적이다. 그는 계속해서 정렬을 유지할 것이다. 작업공간 안에서 즉흥성도 정렬한다. ‘순수하고 자유로운 놀이’라는 작가가 정의한 규범 체계에서 부족함과 미숙함을 허용하지 않으려는 욕망이 느껴진다. 손과 붓이 ‘움직이는 대로’는 삶을 긍정하는 태도의 일환이며, 본인의 작업 과정을 신뢰하는 것이다. 더 맑고 투명한 레이어를 위해 표현을 정제하면서 중첩한다. 레이어의 사이를 감각하면 관념적으로 포토샵의 지워진 배경처럼 백색과 회색의 체커보드가 언뜻 보이는 듯도 하다. 선명한 기억을 흐린 이미지로 드러낸다. 은은해 보이는 화면으로 감상자에게 삶의 긍정을 강렬하게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대비감, 순환과 적층은 투명성이 담보되어, 맺혀있는 실재한 이미지도 물결 위의 마블링 물감처럼 일렁이듯 보인다.

2. 밀도

하나의 화면 안에서 쌓인 시공간과 (기호화된) 등장인물의 중첩은 영화 ‘인터스텔라’의 테서렉트와 같은 특이점의 지점을 연상시킨다. 다만 어둡고 외로운 느낌이 없이 밝고 포근한 느낌만이 존재하는데, 이 안에는 긍정만 담겨 있는 것은 아니다. 긍정과 함께 ‘부정의 부정’이 담겨있다. 상실로 인한 슬픔과 두려움은 작품 안에서 생생하고 영원하게 존재시킴으로, 다시 기쁨과 행복으로 전환한다. 극복된 아픔은 작가와 관객 모두를 감화시킨다. 작가가 구축한 이데아는 신성성을 향하지는 않지만, 이상적 원형에 도달하려는 시도를 숨기지는 않는다. 나, 나의 아이, 그리는 행위, 일상, 경험, 기억, 감각 등을 함유한 이 기호적인 형상들은 정확한 재현을 달성하지 않아도 서사를 가능케 하고, 또 서사를 이끌어간다.

웹 개발에서 ‘디자인 시스템’은 디자인 원칙과 규격을 정의하고, 재사용할 수 있는 UI컴포넌트, 코드를 포괄하는 시스템을 말하는데, ‘Draw without drawing’ 시리즈의 기호화된 내러티브와 색채의 정의, 매체의 조합은 하나의 디자인 시스템을 회화에 도입한 듯 각각의 회화가 일관성을 보유하면서도 각각의 구분된 감상을 제공하고 있다. 작품명이라는 URL을 따라가면 화면(회화) 안에 아카이브 페이지가 퍼블리싱 되어 있는데, 촘촘하고 견고하며 제대로 작동하는 화면(회화)으로 보인다.

물론 거칠게, 부드럽게, 신나게 그린 작품에는 코드화된 방식을 거부하려는 작가 본래의 의지도 피력된다. 이는 관습과 제도 교육 등 여러 권력 장치에 의해 현대인에 스며들어 있는 자기 검열을 탈피하기 위함이다. 또한 게이미피케이션이 적용된 것처럼 구상과 구현의 모든 그리기 과정 중 비 게임적 맥락에 게임 요소를 적용하여 오락이나 유희 목적의 맥락으로 탈바꿈 시켜 창작 행위 자체를 더 매력적이고 재미있게 만들고 있다. 작가가 그림을 완성하는 과정은 단순히 밀도를 쌓아 올리는 것이 아니라, 기억을 연쇄적으로 꺼내어 다시 감각하고, 해상도를 높이는 행위도 동시에 일어난다.

이러한 행위의 총체가 투명성에 가려지지 않은 깊고 묵직한 밀도를 형성한다.

기존에 작성된 비평들과 다른 관점으로 계속 나아가자면, 작가가 완성한 체계는 순수하게 이성적인 회화이며, 여러 분석에 언급된 자동기술법을 맹종하지는 않을 것 같다. 자유로운 표현 방식, 다양한 혼합매체는 심지보다는 표피같이 느껴진다. 작가는 회화로 실현하려는 것이 있다. 조형 언어의 형식적 구축은 장식으로 귀결될 것이라는 두려움이 있다면, 그것은 내려놓는 것이 맞아 보인다. 이 정렬된 화면이 투명과 밀도를 담아냈고, 감상자를 지순한 행복으로 감화시킬 것이라는 기대와 확신이 더 맞아 보인다.

전시에 등장한 작가의 작품들은 삶의 순간들을 차곡히 쌓은 푸릇한 선반들이다. 작가가 작품 안으로 내어준 통로를 따라가다 보면, 레이어마다 행복 추구와 긍정 회복의 비가 투명하게 내리고 있을 것이다. 젖은 줄도 모르고 기분 좋은 축축함으로 걸어갈 것이다.

Jeong Hyun Ha's *Luminous Density: Innocence on Canvas* (2024) grounds itself in the traditional language and narrative of the artist whilst allowing for new perspectives and interpretations. Ha's new solo exhibition at Roy Gallery aims to illustrate what she considers a sense of "luminous density" from her canvas. This essence is attained in two areas: the formative language of her expressive technique and the symbols on canvas that capture Ha's life-moments.

Ha's primitive painting style is associated with her perspective and attitude towards the canvas. Consisting of scribbly handwriting and rich colors, she intends luminous density by using oil sticks as her primary medium. Unlike typical processes in oil paintings, Ha's process involves using the oil stick to rub by hand and/or brush to increase fluidity on canvas. Other steps include using an oil-sticked brush to directly paint or dipping the bar into a medium then applying it to the brush. Through these methods, Ha reveals a set of emotions and intentions that honestly yearns for essences of purity and transparency. Here, Ha's myriad use of mediums reflects a certain complexity of underlying narratives rather than representing formal ideas. Thus, her choice illustrates the paradox of how painting with less force can at times communicate greater power on canvas.

The series title, "Draw Without Drawing" refers to the fact that Ha's works are not about drawing in the classical sense of the word, but about drawing out what is inside of her. Spanning from 2013, the series is currently in its 160th installment. Principally, the entire lack of hyphenation or alphabetization in Ha's numbering system indicates parity in value amongst all her works—regardless of size or layer depth. Like a singular, unbreaking line the numbering system is perhaps further symbolic of the overarching, connected nature of an artist's journey whose personal path is coherently linked and creative output uniformly valuable. As such, Ha leaves us curious regarding the changes and continuities of next few hundred works in "Draw Without Drawing".

1. Luminosity

Holding degrees in both fine art and design, Ha has matured her design language through corporate settings and has since explored this background on canvas. This process manifests itself optically through Ha's internalized codes of simultaneously understanding sculptural and design languages. From this perspective, Ha's works are visually invocative of user interface (UI) design.

From Apple's real-world resemblance technique of "skeuomorphism" to Microsoft's "flat design" method of organization through simplistic lines and planes, and Google's "material design" approach toward three-dimensionality or Dribbble's "neumorphism" emphasis on volume and shadow tactility, the evolution of UI design over the past twenty years is ceaseless.

However, rather than mimicking the periodic shifts characteristic of modern artists in the past few decades, Ha actualized her own sense of change through another UI design trend in "glassmorphism". Characterized by its distinctive blurring of the background to create a frosted-glass effect, glassmorphism utilizes multiple layers to float objects in space and vivid colors to emphasize blurred transparency augmented by subtle, faint borders.

Wholly independent of the artist's intention, it is up to the viewer to discern whether the similarities are naturally reflective of an artist whose experiences are shaped through the digital screens and as such, processes and interprets data under such a rubric. Most likely, this seems to be the case.

Though transparency is achievable through conditions of pristine clarity, it is also attainable through refinement. Ha embodies the latter, as her regulated and methodical nature pronounces itself whether through personal interviews or the sheets of stainless-steel paints stacked neatly on her palette in her studio. Undoubtedly, Ha will continue to keep things in order. Even improvisation in her works exposes this organization. Despite self-characterizations of pure and carefree frolic, she divulges a strong devotion to eliminate inadequacies and inexperience from such ordered norms of gaiety. As such, Ha's flowing use of hands and brush affirms her positive attitude and trust in the artistic process. She strives toward luminance through refined and layered expressions. Spaces between layers evoke the checkerboard of white and gray like erased backgrounds in Photoshop—revealing clear memories as blurred images. Through this subtle screen Ha seemingly demands the viewer to similarly affirm life. Like the ripples of marbled paint on clear water waves, the contrasts, cycles, and layers of Ha's images intertwine and luminate.

2. Density

The superimposition of time, space, and symbols within a single screen evokes the singularity of the Tesseract in the movie *Interstellar*. Though Ha's bright and cozy image lacks discernible gloom or solitude, it does not exude sheer positivity. Alongside the zeal pervades a "negativity of negativity." Simply put, Ha seemingly internalizes loss and vividly transforms her sadness and fears as joy and happiness. The pain overcome, then, moves both the artist and the viewer. Ha's ideology does not outright aim for the sacred but does not preclude the attempt towards idealized archetype. The symbolic figures of the self, child, acts of drawing, as well as the quotidian of experiences, memories and sensations all enable and guide the narrative without achieving a sense of reenactment.

In web development, a "design system" refers to a system that defines design principles and specifications which includes reusable UI components and code. In Ha's works, the symbolic narrative, color definition, and combination of mediums in the "Draw Without Drawing" series effectuates such a design system so that each painting is coherent whilst offering a distinct experience. Clicking on any URL of a title of Ha's works, we are led to an archive page of symbols and images published of a densely, packed screen of her painting.

Of course, the rough, soft, and playful drawings also reveal the artist's willingness to reject norms and codes. This is perhaps to shed pressures of self-censorship instilled by various devices of societal control such as social customs and institutionalized education. Through the entirety of her creative process, Ha pursues gamification by applying game-like elements to non-game contexts of conception and realization: transforming creative acts themselves into contexts for entertainment that engage. Ha's process of completion is not simply an act of building density, but an act of drawing out the cascade of memories and re-sensitizing them to increase their resolution.

Ultimately, the sum of these acts foments a profound, heavy density unshrouded by its luminosity.

Continuing our divergent assessment of Ha, the system that she perfects is purely rational, and does not follow techniques of automatism as mentioned by various critics. Her unfettered expressions and various mediums applications are akin to the epidermis than the core. The artist ultimately has something she wishes to realize through her painting. It seems more appropriate to quell worries of potential reduction of formal, sculptural language into mere decorative background. Clearly, Ha has managed to arrange the screens of luminous density with a sense of expectation and conviction that moves the viewer to a state of pure bliss.

Ha's works present themselves like lush shelves stacked with her memories. Treading in through the carefully laid path amongst the canvases, we are luminously showered with happiness and positivity sourced from layers of her works. We walk away, pleasantly damp in this rain.

나는 항상 어떠한 의도나 구상없이 손에 잡히는 오일바를 가지고 캔버스에 긋고 칠하고 손과 붓으로 문지르는 것을 이어간다. 이것은 아무런 마음의 거슬림 없이 유희하는 가장 기쁜 '나의 놀이'이다.

이 순수하고 자유로운 놀이는 캔버스에 투명하리만큼 꾸밈 없고 솔직한 흔적을 남긴다. 캔버스 표면에 오일바의 끝이 닿는 찰나, 놀이가 시작되면 저절로 무언가 그어지며 내게 잠재되어 있던 무수한 것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끌어올려지고 터져나온다. 그것들은 또렷하기도 하고 모호하기도 하다. 어떠한 대상이기도 상황이기도, 특정한 시간이기도 공간이기도, 느낌이거나 분위기이기도 하다.

매우 다양하고 복합적이기도 한 이것들은 매일 같이 이어지는 나의 놀이를 통해 하나의 동일한 캔버스 혹은 여러 서로 다른 캔버스에 거듭 겹쳐지고 포개어진다.

그렇게 하여 생긴 두터우며 그윽한 밀도의 중첩 속에는 내 삶의 아름답고 소중한 모든 순간들이 켜켜이 그리고 촘촘히 놀이의 흔적으로 쏟아내어져 있다. 특히 모든 대상으로부터 무한한 사랑을 받던, 세상의 모든 것들과 명량한 교감을 하던, 삶 자체를 순수하게 유희하며 지내던 나의 유년기 순간들에 집중되어 있다. 그리고 내 아이와 함께하고 있는 지금 내 삶은 보통의 빛나는 순간들이 그 강력한 통로가 된다. 이 통로는 삶 자체를 유희하고 지내던 잠재되어 있던, 내 유년기 찰나들을 풍부하고 강렬하게 그리고 끊임없이 현재로 솟구치게 하여 교차되고 섞이게 하준다. 이러한 경험들은 나에게 삶의 순간들에 대한 아름다움을 지각하게 해주고 순수한 경감을 풍성하게 제공하며 작업실에서의 놀이에 자연스레 반영되어 드러난다.

여기에는 예쁘고 행복한 것들도 있고 슬프고 아름다운 것들도 있으며 따끔하지만 우스운 것들도 있다. 그러나 이 아름다운 삶의 순간들과 그 순간을 이루는 모든 것들은 유한하여 지금 실재하지 않기에 나에게 강한 슬픔과 두려움을 안겨준다. 하지만 흐려지고 사라지고 없어지는 그것들은 내 놀이의 흔적으로서 생생하게 다시 존재하게 된다. 유한하였던 무수한 그것들은 캔버스 속에서 한데 모이고 어우러져 영원히 그리고 무한히 생동한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캔버스 위에서 놀이를 한다. 맑고 순수하여 투명한 삶의 순간들이 차곡차곡 쌓여 깊고 묵직한 밀도가 생겨난다. 즉, '투명한 밀도'로서의 그림이자 삶 말이다.

draw without drawing 145에 대한 에피소드

작업실에 도착해 작업복을 갈아입으며 복잡한 생각들을 버리고 가장 편안한 마음으로 즐겁게 놀아볼 준비를 한다. 어제 맘껏 놀이했던 캔버스 위에 오늘은 밝은 푸른색 오일바를 집어들고 짹 짹 긋고 멋대로 칠해보며 놀이에 빠져든다. 순간 며칠전 아이와 함께 산책로 나무에서 발견했던 빨간 열매의 형상이 속속 캔버스 위에 남겨진다. 아이는 그 빨간 열매 여러개를 손에 모아 나에게 조심스레 보여주며 자랑한다. 그리고 그것은 오래전 내가 외가의 마당에서 연두색 작은 열매들로 소꿉놀이 하고 있던 순간을 불러일으켜준다. 갑자기 주마등처럼 머릿 속을 스쳐지나가는 것들이 내 손의 움직임과 함께 캔버스 위에 우르르 쏟아내어진다. 외가의 마당에 있던 나무에서 떨어지던 대추들이 땅에 닿는 소리, 그 때의 햇빛과 바람의 느낌, 외할머니께서 먹여주셨던 손가락에 부여진 분홍색 물약의 볼록한 모양, ... 꼬리에 꼬리를 물고 특별한 질서 없이 계속 떠오른다. 독특한 손잡이가 있던 계단, 그 계단을 뛰어 올라가는 내가 신고 있던 양말의 리본, 방문의 손잡이와 경첩들, 문을 열고 들어가면 나는 외할아버지의 책 냄새들.... 그 모든 것들은 지금의 나 자체를 이루고 있는 맑고 순수하며 따뜻하고 단단한 것들이다. 하지만 슬프고 두렵게도 그 때의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지금은 없다. 외할머니도 외할아버지도 그 때의 그 집도 마당도 햇빛과 바람도... 사라지고 없다. 하지만 신나게 놀고난 나의 캔버스 위에 어느새 그 모든 것들이 한데 모여 생생하게 살아 움직이고 있다. 그 아름다운 무수한 것들이 생동하며 나의 캔버스 안에서 무한하고 영원하게 존재한다.

하정현 (b.1980)

이화여자대학교 겸임교수

한성대학교 부설 디자인아트 교육원 겸임교수

학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시각디자인과 디자인학 박사(Ph.D.)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시각디자인과 미술학 석사(MFA)

이화여자대학교 조형예술대학 도자예술, 시각정보디자인학과 미술학사(BFA)

개인전

- 2023 GLAD LANDSBY, 아틀리에 키마, 서울, 한국
- 2022 하정현의 날개들, 갤러리이든, 서울, 한국
- 2020 하정현 개인전, 에코라크갤러리 x YTN아트스퀘어, 서울, 한국
- 2018 하정현 개인전, 인사아트프라자갤러리 공모 당선작가전, 서울, 한국
- 2017 draw without drawing, 파비온드 갤러리, 서울, 한국
- 2014 playing, GS타워 더 스트릿 갤러리, 서울, 한국
- 2012 draw without drawing, Gallery DOS, 서울, 한국
- 2011 draw, ing, show. Gallery gabi, 서울, 한국
- 2005 하정현 개인전, GANA ART SPACE, 서울, 한국

단체전

- 2023 아트그라운드런던 2023, 사치갤러리, 런던, 영국
 - 2023 연말상설기획전, 씨포먼트 갤러리, 서울, 한국
 - 2022 Find your piece 2022, 씨포먼트 갤러리, 서울, 한국
 - 2021 아트마이닝 주제 공모전-숲으로, 스페이스 445, 서울, 한국
 - 2020 COSO 신진 작가전, 갤러리 코소, 서울, 한국
 - 2018 아트마이닝서울 2018 '100 MINING ARTISTS : 주목받는 한국 아티스트 100인展', DDP, 서울, 한국
 - 2018 에코라크 갤러리 기획 제1회 추상화展 : Feast of Color, 에코라크 갤러리, 서울, 한국
 - 2018 The Next Big Movement - 키미아트 15주년 기념전, 키미아트갤러리, 서울, 한국
 - 2018 제9회 서울모던아트쇼-메세나 대상전 공모선정 작가전,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서울, 한국
 - 2018 동경(憧憬)하는 자들-키미포유 작가공모 선정전, 키미아트, 서울, 한국
 - 2018 ON-'세상에 온전히 서다'전, 인사아트 프라자 갤러리 작가공모당선전, 서울, 한국
 - 2018 '소소한 행복'전, 갤러리씨포먼트 기획전, 서울, 한국
 - 2017 제2회 한국미술지원프로젝트, 세종문화회관, 서울, 한국
 - 2017 더 갤러리 쇼, 도산공원, 서울, 한국
 - 2017 서울모던아트쇼, 예술의전당, 서울, 한국
 - 2017 카탈로그레조네 전, 에코라크 갤러리, 서울, 한국
 - 2017 갤러리 라이프 신진작가 공모 선정전, 갤러리 라이프, 서울, 한국
 - 2017 위풍당당 에코라크 갤러리 기획전, 에코라크 갤러리, 서울, 한국
 - 2017 제 5회 서울미협초대작가전, 한전아트센터갤러리, 서울, 한국
 - 2016 The Begining전, 에코라크 갤러리, 서울, 한국
 - 2016 SUN10전, 640아트타워, 서울, 한국
- 등 50여 회

작가선정 및 수상

2021	아트마이닝 주제공모전 작가 선정
2020	서울시 문화본부 박물관과 추진 '신진미술인 지원을 통한 일상전시 사업' 미술작품 구입 선정
2020	제3회 갤러리 COSO 신진작가 공모 선정
2018	제16회 서울미술대상전 장려상 수상
2018	제8회 서울모던아트쇼 메세나대상전 작가 선정 및 삼천당제약 창작금 지원 작가 선정
2018	키미포유 키미아트 신진작가 공모 선정
2018	인사아트프라자갤러리 신진작가 공모 선정
2017	아트마이닝 신진작가 공모 선정 및 우수상 수상
2016	파비온드 갤러리 신진작가 공모 선정
2016	갤러리 라이프 신진작가 공모 선정
2016	에코락 갤러리 신진작가 공모 선정
2015	Art & Life Show, 영 아티스트 선정
2014	GS타워 더스트릿갤러리 작가공모전 선정
2014	제6회 서울모던아트쇼 장려상
2013	중외 영아트 어워드 2013, 특선
2013	제 11회 서울미술대상전, 특선
2013	제 9회 광화문 국제 아트 페스티벌 현대미술 청년작가 시선展 공모 선정
2013	리서울 갤러리 신진작가 공모 선정
2012	제 8회 광화문 국제 아트 페스티벌 현대미술 청년작가 시선展 공모 선정
2005	제 14회 한국출판미술대전, 동상
2004	제 13회 한국출판미술대전, 은상

작품 소장처

국립현대미술관 정부미술은행

서울시 문화본부 박물관과

에코락 갤러리

(주) 선진 외

M STAY 호텔

640아트 갤러리

개인 컬렉터

Jeonghyun Ha (b.1980)

Adjunct Professor at EWHA WOMANS UNIVERSITY

Adjunct Professor at HANSUNG UNIVERSITY Design & Art Institute

Education

Ph.D. Visual Communication Design, Ewha Womans Univ.

M.F.A Visual Communication Design, Ewha Womans Univ.

B.F.A Ceramic Art and Visual Information Design, Ewha Womans Univ.

Solo Exhibitions

- 2023 GLAD LANDSBY (Atelier KYMA, Seoul, Korea)
- 2022 Pieces of Her (Gallery EDEN, Seoul, Korea)
- 2020 'Jeonghyun, Ha' Solo Exhibition (YTN Artsquare, Seoul, Korea)
- 2018 Solo Exhibition (INSA ART PLAZA Gallery, Seoul, Korea)
- 2017 draw without drawing (Far Beyond Gallery, Seoul, Korea)
- 2014 Playing (GS Tower The Street Gallery, Seoul, Korea)
- 2012 draw without drawing (gallery DOS, Seoul, Korea)
- 2011 draw, ing, show. (gallery Gabi, Seoul, Korea)
- 2005 Ha Jeong-hyun Solo Exhibition (Gana Art Space, Seoul, Korea)

Group Exhibitions

- 2023 ART GROUND LONDON (Saatchi Gallery, London, United Kingdom)
 - 2023 Year-end permanent exhibition (Suppoment Gallery, Seoul, Korea)
 - 2022 Find your piece 2022 (Suppoment Gallery, Seoul, Korea)
 - 2021 ARTMINING SEOUL 'Into the forest' (Space 445, Seoul, Korea)
 - 2020 COSO New Artist Exhibition (COSO gallery, Seoul, Korea)
 - 2018 Artmining - Exhibition of 100 Korean rising artists (DDP, Korea)
 - 2018 Feast of Color (Ecorock Gallery, Seoul, Korea)
 - 2018 The Next Big Movement (Kimi Art, Seoul, Korea)
 - 2018 Seoul Modern Art Show (Seoul Art Center, Seoul, Korea)
 - 2018 The Yearners (Kimi Art, Seoul, Korea)
 - 2018 'ON' (INSA ART PLAZA Gallery, Seoul, Korea)
 - 2018 Small happiness (Gallery Suppomen, Seoul, Korea)
 - 2017 Korea Art Supporting Project (Sejong Center, Seoul, Korea)
 - 2017 The Gallery Show (Dosan Park, Seoul, Korea)
 - 2017 Seoul Modern Art Show (Seoul Art Center, Seoul, Korea)
 - 2017 Catalogue Raisonné (Ecorock Gallery, Seoul, Korea)
 - 2017 Life, Young Artist (Gallery Life, Seoul, Korea)
 - 2017 The year of red chicken (Ecorock Gallery, Seoul, Korea)
 - 2017 Seoul Fine Arts Association (KEPCO Art Center, Seoul, Korea)
 - 2016 The Begining (Ecorock Gallery, Seoul, Korea)
 - 2016 SUN10 (640 Art Tower, Seoul, Korea)
- and many othe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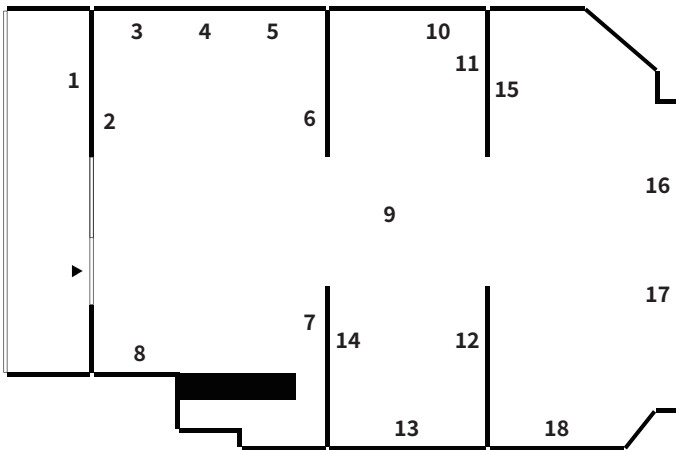
Selected Awards

- 2021 selected as an artists for Exhibition(Into the forest) of Art Mining
- 2020 Selected for a contest to purchase works for daily exhibition projects through support for up-and-coming artists
Promoted by the museum department of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Cultural Headquarters
- 2020 Selected as a rising artist by Gallery COSO
- 2018 The 16th Seoul Fine Art Awards, Participation Prize
- 2018 Seoul Modern Art Show, selected as an artists for Mecenat Award, selected as one of 15 artists who will receive
support fund from Sam Chun Dang Pharm. Co.,Ltd
- 2018 Selected as a new artist by Insa Art Plaza Gallery
- 2018 Selected as a young artist by Kimi Art Gallery
- 2017 Selected as a young artist by ART MINING (Excellence Award)
- 2016 Selected as a rising artist by Far Beyond Gallery
- 2016 Selected as a rising artist by Gallery Life
- 2016 Selected as a rising artist by Ecorock Gallery
- 2015 Selected as a rising artist by Art & Life Show
- 2015 The 13th Seoul Fine Art Competition, Special Prize
- 2014 The 6th Seoul Modern Art Show, Participation Prize
- 2014 Selected as a rising artist by GS Tower the Street Gallery
- 2013 JW Young Art Award, Special Prize
- 2013 The 11th Seoul Fine Art Award, Special Prize
- 2013 Selected as a artist in the 9th Gwanghwamoon International Art Festival contest exhibition
- 2013 Selected as a rising artist by Leeseoul Gallery
- 2005 The 14th Korea Publishing Illustration Contest, Bronze Prize
- 2004 The 13th Korea Publishing Illustration Contest, Silver Prize
- 2004 The 23th Grand Art Exhibition of Korea, winning a prize and so 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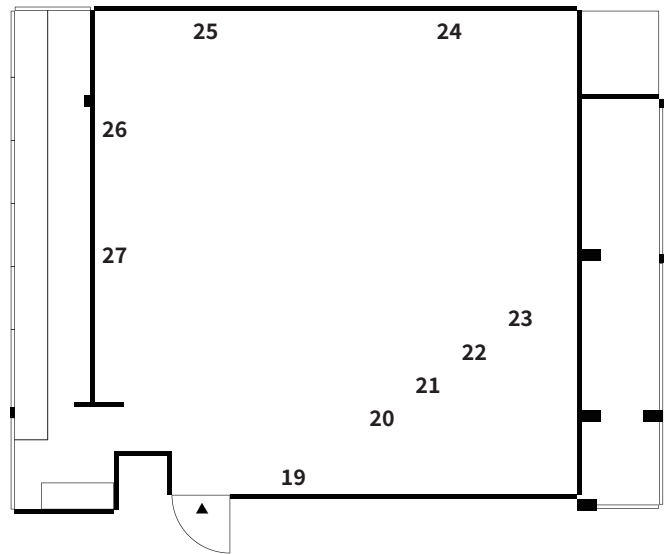
Collection

National Museum of Modern & Contemporary Art, Korea Government Art Bank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Cultural Headquarters, museum department
Ecorock Gallery
Sunjin Co., Ltd.
M STAY HOTEL
640 ART Gallery
Private collection

A1



A7



1	Draw without drawing 163	Oil on canvas	89.4 X 130.3 cm	2024
2	Draw without drawing 159	Oil on canvas	45.6 X 33.4 cm	2024
3	Draw without drawing 153	Oil on canvas	91.0 X 91.0 cm	2024
4	Draw without drawing 165	Oil on canvas	91.0 X 91.0 cm	2024
5	Draw without drawing 154	Oil on canvas	91.0 X 91.0 cm	2024
6	Draw without drawing 161	Oil on canvas	31.8 X 40.9 cm	2024
7	Draw without drawing 162	Oil on canvas	53.0 X 40.9 cm	2024
8	Draw without drawing 147	Oil on canvas	80.3 X 80.3 cm	2024
9	Draw without drawing 164	Oil on canvas	162.2 X 130.3 cm	2024
10	Draw without drawing 155	Oil on canvas	112.1 X 112.1 cm	2024
11	Draw without drawing 158	Oil on canvas	112.1 X 112.1 cm	2024
12	Draw without drawing 146	Oil on canvas	80.3 X 80.3 cm	2024
13	Draw without drawing 148	Oil on canvas	80.3 X 80.3 cm	2024
14	Draw without drawing 145	Oil on canvas	80.3 X 80.3 cm	2024
15	Draw without drawing 156	Oil on canvas	112.1 X 112.1 cm	2024
16	Draw without drawing 139	Oil on canvas	162.2 X 130.3 cm	2024
17	Draw without drawing 141	Oil on canvas	162.2 X 130.3 cm	2024
18	Draw without drawing 140	Oil on canvas	116.8 X 91.0 cm	2024
19	Draw without drawing 157	Oil on canvas	112.1 X 112.1 cm	2024
20	Draw without drawing 151	Oil on canvas	89.4 X 130.3 cm	2024
21	Draw without drawing 149	Oil on canvas	89.4 X 130.3 cm	2024
22	Draw without drawing 152	Oil on canvas	89.4 X 130.3 cm	2024
23	Draw without drawing 150	Oil on canvas	89.4 X 130.3 cm	2024
24	Draw without drawing 142 (142-1 ~ 142-9)	Oil on canvas	240.9 X 240.9 cm (80.3 X 80.3 X 9EA)	2024
25	Draw without drawing 160	Oil on canvas	31.9 X 40.9 cm	2024
26	Draw without drawing 144	Oil on canvas	162.2 X 130.3 cm	2024
27	Draw without drawing 143	Oil on canvas	162.2 X 130.3 cm	2024